

4. 옥홀(玉笏)

송광면 이읍리 1066번지에 있는 이 옥홀은 길이 27.4cm, 너비 3.4cm이다. 이 옥홀은 청백색 옥석으로 된 조관들의 휴대품으로 1513년(중종 8) 임금이 신재(新齋) 최산두(崔山斗)에게 하사한 것이라고 전한다. 최산두는 조광조와 뜻을 같이하다가 기묘사화로 연좌되어 유배되었으며, 풀려나온 뒤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벼슬은 사인(舍人)에 이르렀고 문인으로 김인후(金麟厚), 유희춘(柳希春) 등의 명유(名儒)가 있다.

이 옥홀은 몸에 부착한 관복의 휴대품이지만 관인이 조견(朝見) 때만 패용하였으며, 결코 상민들의 상용물이 아닌 특수한 제작품이다. 정교한 옥석에 '일인유경보명유신(一人有慶寶命維新)'이란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 옥홀은 중간에 민가로 흘러갔다가 최산두의 종가에서 이를 회수, 가보로 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되어 있다.